

**2009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항설명 및 채점총평**



2009. 5. 18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2009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I. 시행 개요

1. 개념 및 성격

- 우리 대학교에서 지향하는 논술고사는 개별 교과 지식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교과 영역간의 전이과정에서 발견되는 통합적,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
- 특정 교과에 담긴 지식의 무조건적 암기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형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
- 통합교과라는 개념은 교과와 교과의 기계적 통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통합적 사고력을 의미함. 따라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교과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과들에서 얻어진 지식을 넘나들며 소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지식의 영역전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더불어 개별 교과의 수업이 단순 문제 풀이식이나 일방적인 주입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상호 소통하며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실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

2. 시행

- 대상 :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단계 합격자
- 인문계열 모집단위
 - 문항 수 : 3문항
 - 고사시간 : 300분(1번 문항 120분; 2, 3번 문항 180분)
 - 답안분량
 - <문항 1>
 - 1800±100자
 - <문항 2>
 - 논제 1 : 1000자 이내
 - 논제 2 : 800자 이내
 - <문항 3>
 - 1400자 이내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문항 수 : 1문항(인문계열 문항 1과 동일)
 - 고사시간 : 120분

3. 출제 방향 및 취지

2009학년도 논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은 2008학년도 논술고사와 출제 방향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통합교과형 논술이 단순히 교과간의 통합이 아니라 사고력의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대학교 논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출제방향은 이미 2005년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1)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과 주제 활용, 2) 사교육을 통해 급조되거나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측정, 3)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심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습득한 지식을 통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은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논술 문항의 제시문이나 논제로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수업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인문계열에서는 다양한 교과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4.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및 기 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감점 및 결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길이 미충족 · 필기구 종류 및 색깔 위반 · 응시자의 신원노출
이해·분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 능력 ·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독해) 능력 ·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논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설정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 -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타당성 -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 - 표현 견해가 제시문의 논이에 의거해 적절한 뒷받침 · 구성 조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논의 전개에 정합성 및 일관성이 유지 -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 비약은 여부 -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창의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의 고려 -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가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해 고려 -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가 고찰 · 다각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상이나 관전 전환을 시도 -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 - 여러 개념들의 종합 -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창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이나 논거에 새로움 -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 -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참신함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 - 단락구성 및 어휘의 적절성 - 맞춤법 등의 어법, 원고지 사용법 준수

II. 인문계열 문항설명 및 학생답안

【문항 1】

【제시문】

사람들이 선택하는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사회적 배경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자신이 처한 개인적·사회적 상황, 타고난 능력이나 받을 수 있는 교육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매우 다양하게 선택되고 그 의미가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교에 헌신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류나 조류 연구에 일생을 바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자가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삶의 다양성은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결정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가능한 한 존중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

※ 위 제시문의 논리 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논제에 답하십시오.

【논제】

삶의 다양성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800±100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와 이에 반하는 사례를 문학, 예술,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 활용하십시오.)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출제 의도

- 논술고사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은 주어진 명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장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 제시문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삶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문항은 다양성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주장하는 제시문을 주고, 당위성의 근거를 질문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보았던 익숙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예와 반례를 들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사고력을 전개시킨 후, 이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문항 설명

- 논제가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근거이므로, 다양한 답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삶의 다양성에 대한 단순한 사례의 나열이 아니라, 이 사례를 활용한 논증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즉 사례와 주장의 적합성이 중요하다.
- 삶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고, 그 반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출전 및 참고 교과서

윤리와 사상 교과서 28쪽

□ 총평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 출제된 문항이므로 대부분의 답안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주장의 일관성, 예와 반례의 적절한 활용, 독서량과 사고의 폭은 답안마다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답안 대부분이 1) 틀에 박힌 내용과 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2) 사례들 역시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3) 독창적인 논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튀어 보이지 않는 무난한 답안을 작성하였고, 비슷한 답안은 비슷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사고가 이토록 획일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삶의 다양성이 필요한 정도를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로 구분할 수도 있고,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답안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는 문학, 예술,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내고, 논지에 반하는 적절한 사례를 제시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 요건에 덧붙여, 삶의 다양성에 대한 정의, 개인적 필요성과 사회적 필요성 사이의 연결 관계, 관용과 배타성(불관용) 등으로 논지를 확장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지 않은 답안은 글의 논리적 구조가 명확하지 않거나, 삶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단순히 효율성이나 자아실현 등 하나의 관점에서만 이해하여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경우, 반례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은 글, 반례에 대한 재반박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논지의 일관성을 잃거나 양비론에 머무는 경우, 사례의 사용이 자신의 주장에 적절치 않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경우, 사례의 사용이 적절하더라도 그 예시가 독서에 의한 사고력을 반영하기 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 논리적 전개보다 예시 열거에 치중하는 경우 등이다.

□ 학생답안

◦ 답안 1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삶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자기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소수층이 수면 위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수층의 삶의 모습과 가치도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논리적으로 삶의 다양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삶의 다양성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삶의 다양성이란, 개인의 선천적 배경이나 상황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 다양한 삶의 목적들과 의미를 말한다. 따라서, 선천적 신체조건이나 문화적 배경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 인간의 천부적인 특성상 삶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삶의 다양성을 무시할 경우에는 그 반작용으로 사회와 개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삶의 다양성을 무시할 경우, 개인들은 그것을 압제로 느끼고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영국이 인도의 세포이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 했을 때, 세포이들은 반발했으며 세포이 항쟁을 일으켰다. 또,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로 개종하는 길 대신에 미국으로의 이주를 택했다. 이처럼, 삶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불러온다. 또 삶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자칫 흑백논리로 사회를 물들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적소수자들의 삶의 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며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도 흑백논리에 잠식 당한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사회의 편향적인 발전도 삶의 다양성을 무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삶의 다양성 존중을 외치는 프랑스의 문화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프랑스를 문화 선진국으로 만들어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다양한 인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이 인재들은 사회의 각 방면에서 활약할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에 고른 발전을 가져다 준다.

물론, 삶의 목표가 통일성을 갖는 경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시,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이 높아져 화목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삶의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조선 초에 실시된 억불숭유 정책은 사회를 유교로 통합하여 국민들을 교화하고 지배체를 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며 확고한 중앙집권체제의 성립은 세종 때의 문화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삶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흑백논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억누른다. 공통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화목하고 호의적일 수 있으나, 그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배타적일 수 있다. 조선 초의 억불숭유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유교에 밀린 불교의 스님들은 억압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 억불숭유 정책이 불교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통합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사회의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개인들의 각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성이 필수이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사회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으며 소수층의 일방적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도 삶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 채점평

글의 내용과 구성이 무난한 답안이다. 글의 도입부에서 삶의 다양성을 정의한 후, 왜 삶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왜 다양성을 논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인색하다. ‘지금부터 ... 논의해 보고자 한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거슬리지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례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구성요건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사례로 제시한 역사적 사건들이 동서양을 막론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종교와 관련되어 개인적 차원의 다양성과 사회적 차원의 다양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깊이와 폭이 다른 답안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

• 답안 2

최근 쌀, 보리, 밀 등 소수작물 중심이 아닌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자는 농산물 다양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소수작물이 먹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병충해를 입는다면 우리의 식탁은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닥칠 위기에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삶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인류는 행복, 만족 등 보편적인 궁극의 가치를 위해 노력한다. 삶의 다양성은 인류가 이러한 가치를 다양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좀 더 옹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무시된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다양성을 무시하는 지배적 가치가 나아갈 길을 잘못 설정한다면 인류의 궁극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사라진 과거 봉건주의나 일부 국가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그 좋은 사례이다. 봉건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다양성보다는 하나의 이념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혹은 부에 대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힘을 잃은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인 정부에 의해 운용됐기 때문에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오늘날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다양한 대안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변해왔기 때문이다. 대공황 때 당시 적대사상이었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일부 수용해 수정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대안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것은 단지 사회체제만은 아니다. 과학 분야에서 비판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역시 이러한 다양성 존중과 일치한다. 카톨릭교의 힘이 강했던 중세는 과학의 암흑기라고 불린다. 교회에서 그들의 가치에 맞는 연구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교회가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문제삼아 그를 재판에 까지 회부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연구가 자유로워지면서, 과학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성의 존중으로 각 학문 간의 결합과 교류도 용이해져 새로운 학문 또한 탄생하고 있다. 전통 농업과 경제학을 결합한 농경제학이 그 예이다.

문화적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은 문화를 갈등의 기폭제로 만들었다. 과거 서양과 동양의 충돌, 오늘날 서방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이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문화는 크게 발전했다.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이 만나 탄생한 재즈나 팝과 오페라가 만나서 생긴 팝페라,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 탄생한 오리엔탈리즘이 그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삶의 모습이나 가치의 다양성은 그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때만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살상용 무기를 연구하는 과학이나 폭압정치를 일삼은 독재정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삶의 방식과 같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더 나아가 나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만큼 타인의 다양성 역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즈 연주자가 락과 재즈가 결합된 락재즈를 비판하는 것처럼 나의 다양성만 존중하고 남은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원칙 속의 다양성은 다양한 농작물 재배가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먹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변화와 위기에 대한 사회면역력 또한 높여 줄 것이다.

◦ 채점평

이 답안은 삶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당위성과 필요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삶의 다양성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바탕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이 답안에서 사용된 예나 반례는 학생의 독서와 사고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제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사례와 반례의 논박구조는 피상적인 사례들을 나열만 하는 답안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이 답안은 삶의 다양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다양성이 극단적으로 이해될 경우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관적인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인류 보편적 가치나 관용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다양성이 극단적 상대주의나 방임주의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다만 글의 입장이 비교적 절충주의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절충주의와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면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도 흠이다.

【문항 2】

【제시문】

(가)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 및 조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합법성, 호혜성(互惠性), 효율성이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합법성은 쟁점 해결의 과정이나 결과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호혜성은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성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교과서)

(나)

공동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기대이익 총합보다 공동 사업의 기대이익이 더 커야 하고, 각 사업 주체에게 돌아갈 기대이익도 공동 사업의 경우가 개별 사업의 경우보다 커야 한다. 공동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각 구성원들의 공헌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때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평가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이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은 공동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분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

어느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액 예금에 대하여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120만 달러 미만을 저축하면 연 8%의 일반금리를, 120만 달러 이상을 저축하면 연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 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재단 A와 B는 각각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재단 A와 B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 명의 저축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오존층 파괴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면서, 여러 나라는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인 할로젠과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이 협약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대체 물질을 개발하여 프레온 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산업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하고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협약을 준수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오존층 파괴의 근본 원인이 선진국의 선발 공업화에 있다고 보는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의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문화 교과서)

※ 제시문을 잘 읽고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논제 1】

자신이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겠는가? 그 근거를 들어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 제시문 (다)에서 두 복지재단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 배분 방식을 참조하시오.

【논제 2】

제시문 (라)의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800자 이내)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출제 의도

- 이 문항은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대한 사회 및 사회문화 교과서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오존층 파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논제 1】은 교과서의 해당 주제에 대한 ‘열린 과제’에도 나와 있다. 이 논제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에서 언급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수익 분배의 합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여기서 두 복지재단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오존층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질문하여 이 문제에 얽혀 있는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를 유추하도록 하였다.
-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묻는 【논제 2】는 이론과 간단한 사례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사고를 확장하도록 하였다. 현재 여러 나라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 이기주의에 입각한 비합리적 태도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주장을 하는가보다 어떻게 주장하는가가 더 중요하며, 인간의 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것을 기대한다.

□ 문항 설명

- 제시문 (가)를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분쟁 당사자들 간에 윈-윈 (win-win)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분쟁 해결의 근간임을 제시하고 있다.
- 제시문 (나)에서는 수익배분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기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과 구체적으로 수익 분배의 몫을 계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이 내용들을 공동 비용의 배분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 제시문 (다)는 이익 배분의 간단한 사례이고, 제시문 (라)는 현실적인 국제 분쟁의 사례이다.

□ 출전 및 참고 교과서

- 제시문 (가) 사회 교과서
- 제시문 (나) 자체제작
- 제시문 (다) 자체제작
- 제시문 (라) 사회문화 교과서

□ 총평

문항2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논리적 추론과정과 그 해결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2개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답안의 핵심은 제시문 (다)에서 두 복지재단이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 배분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선진국-개도국 간의 협력 방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논제 1에서는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다음, 선진국이 노력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노력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를 분석하여 이 문제가 협동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추가이익분에 대해 1:2, 1:1, 혹은 0:3 등으로 분리하되 ‘공헌도’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익 분배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의 경우 제시문 (다)의 방식을 적용시켰을 때 비용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환경오염을 야기한 정도를 고려하여 공업화의 정도, 공업화의 역사, 현재 개발 당사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선진국이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복구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다)를 언급하지 않고 비용의 공평한 배분, 선진국의 횡포만을 언급하거나, 단순히 공평한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논제 2는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이유를 묻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는 1) 온실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와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성격(무임승차문제), 2) 비가시성, 장기누적성 등으로 인한 비용 측정의 어려움, 3)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개도국의 생존권 문제 즉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나 국가간 경쟁 등 경제적 이해 측면, 4) 체결된 협약의 실효성, 감시기구의 불비나 허약성(UN 등), 신뢰문제 등을 논할 수 있다. 논제 1에서 파악한 문제해결의 요소와 분석의 틀을 논제 2에도 적용시킬 수 있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다.

학생 대부분은 환경 문제나 국제 협력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답안을 작성한 듯했다. 획일적으로 ‘준비된’ 답안은 논술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된 답안’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에만 치중하거나 힘의 논리 혹은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만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논제 2는 원칙보다는 현실에 더 방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혜성, 효율성, 합법성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추상적인 서술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다)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 문제와 국제 협력에 대한 원칙적 주장을 펴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학생들은 투자 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배분방식만을 선택하여 선진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투적 사고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 학생답안

◦ 답안 1

문제 1)

제시문 (라)의 환경문제를 해결방법은 (다)의 두 복지재단이 택할 수 있는 이익 배분 방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의 복지재단은 공동 명의 저축을 하여 얻은 15만 달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가)에서 제시한 합법성·호혜성·효율성과 (나)에서 제시한 공동사업 이익배분 기준이다.

두 가지 방식 중 첫 번째 방식은 15만 달러를 출자액 비율인 1:2로, 즉 5\$:10\$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각자 저축했을 때 얻는 이익 (원래 이익) 4:8보다 이익 총합도 크고 재단별 이익도 크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충족한다. (가)의 호혜성·합법성·효율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각자 원래 이익인 4:8을 기본 이익으로 가지고 나머지 잉여이익 3만\$를 이자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비중에 비례하여 나눠주는 방법이다. 잉여이익에의 기여도는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금에 보태려고 B에게 얼마를 빌려야 하는가와 그 반대를 놓고 비율을 계산한다. 이를테면 B는 A에게 70만\$를 기여한 셈이고 A는 B에게 20만\$를 기여한 셈이므로 기여도는 A:B=2:7이 된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식이 더 알맞다. 첫 번째 방식이 최종 결과에 중심을 맞춘 것에 비해 두 번째 방식은 개개인이 전체와 상대에게 기여한 구체적 정도를 고려했다. (라)의 문제는 (다)의 것과는 달리 이익 계산이 아닌 비용 부담이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에 발생된 손실의 비용과 미래 비용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라)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문제이다.

(라)의 문제에서 개별 국가들이 함께 치러야 할 비용은 과거에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보상금+개도국상국의 대체기술 개발비용이다. 여기서 책임 소재에 따라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현재 상황에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금을 내어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한 개도국의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분을 이 기금에서 출자하게 하면 합리적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논제 2)

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과거에 이루어진 손실비용과 미래비용을 책임소재에 따라 분담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환경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술적·현실적 문제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수치적으로 따지는 것이 불가능한 점이다. 오존층의 파괴는 너무 오랜시간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초래된 책임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기술이 확보되더라도 책임량이 비교적 많은 선진국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줄지에 관한 문제도 불확실하다. (나)가 주장하듯 ‘공헌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비용분담에 대한 분쟁이 심해지기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선진국-개도국 간에는 외교·군사·경제적 바탕으로 인해 공공연한 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라)에서 과거 손실의 원인을 발생시킨 국가로 꼽히는 선진국은 경제·외교·군사·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과 세력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이 (라)에서와 같이 반발심을 지녀도 확실하게 자국의 의견을 협정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또한 선진국 역시 자비를 들여서 개발도상국의 기술력을 키워주는 셈이 되는 협정 규정은 탐탁지 않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력 차이는 (가)의 기준인 합법성·호혜성·효율성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사업 이행의 기준도 지키기 어렵게 한다.

• 채점평

이 답안은 제시문 (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익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공헌도 혹은 ‘기여도’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익 분배 방식간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이익 분배 방식만을 나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하지만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절한 분배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을 통해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문제 상황을 연결하여 제시문 (라)의 문제 해결책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논제 2의 답은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인다. 문제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밝힌 후, 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제시문의 내용 및 논제 1의 답과 긴밀히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이유를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 답안 2

문제 1)

(라)의 문제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할로젠과 프레온 가스 사용을 규제하는 협약에 개발도상국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나)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 협약은 공동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공동사업의 성사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기대이익보다 공동 사업의 기대이익이 많아야 하는데, 이 협약은 환경 파괴를 방지해주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와주므로, 개별 사업, 즉 협약 없는 산업활동보다 기대이익이 크다. 그러나 협약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각 사업 주체, 즉 각국에 돌아갈 기대이익이 후진국의 경우 개별 산업보다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환경 협약의 효력발휘를 위해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가)의 합법성, 호혜성, 효율성이 돼야 한다.

(다)에서의 이익 배분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우대금리의 이익을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1:2로 나누는 것이다. 둘째, 투자금액은 달라도 양쪽 모두의 협력이 있었기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A, B가 각각 투자금액의 8%를 갖고, 나머지는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째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 왜냐하면 산업에서는 오존층 파괴의 책임이 선진국이 더 크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환경 보호 의식에서는 오존층 파괴의 책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의 측면에서는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대체 물질을 공급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물론 (가)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비되므로 비효율적이지만, 개발도상국이 그 물질을 개발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정의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양쪽 모두에게 똑같은 규제를 해야 한다. 단 이때 선진국은 프레온가스를 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있을 경우 염가에 공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의식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막으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면 (가)의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

문제 2)

(라)의 문제에서 ‘합리적’인 선택, 즉 합리적인 해결방식이란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 행해지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합리적 선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 의하면 공동 사업이 지속되려면 발생 이익이 구성원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 보존을 통해 얻는 이익은 전지구적이다. 즉,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은 비용 부담의 유인책이 없고 협약은 지속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재의 비배재성으로 인해 개인이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둘째, 각국의 입장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가)에 의하면 효율성이 사회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희생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고비용을 지불할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호혜성에도 어긋난다. 후진국의 입장에서도 당장의 프레온가스 사용 규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선진국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의 상황은 50만 100만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익금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분배가 가능하다. 반면 (라)의 상황은 선진국이 어느 정도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대체 물질을 공급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받아들일 기준 설정이 어렵다.

• 채점평

문제 1에 대한 답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제시문 (다)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며, 제시문 (라)의 문제 해결책이 동떨어진 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문제 1의 답안 구성은 치밀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두 제시문의 내용을 보다 긴밀히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두 사안 모두 협동의 문제이며, 이익이나 비용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어야 한다.

다만 문제 2의 답안은 문제 1의 답안보다 훨씬 잘 짜여져 있으며,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필수적일 수 있다. 이 점은 소수의 학생들만이 언급하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이익의 배분 방식도 비록 두 가지만을 제시하였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배분 방식은 절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학생들이 제시했던 방식들에 비해 독특하였다. 다만 문제 1에서 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에서도 유인책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문항 3】

【제시문】

(가)

우리 민족의 문화는 조상들이 자연 환경 및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쌓아 온 지혜와 생존 전략의 결정체이다. 오늘날에는 생활환경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을 뿐 아니라 외래문화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전래의 민족문화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염려하기도 한다.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전래되어 온 민족문화의 정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 교과서)

(나)

“진정성”은 전통문화의 계승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어떤 문화가 핵심적 요소를 유지, 보존, 전승하고 있을 때 그 문화는 진정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 핵심적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그 시대 문화공동체 내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계적이거나 획일화된 판단 기준은 있을 수 없다.

(다)

한옥은 일반적으로 구들(온돌)과 마루를 함께 갖추고 있다. 온돌과 마루가 공존하게 된 것은 한반도가 추운 겨울과 따듯한 여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는 한옥을,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지리 교과서,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라)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서울과 전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낡은 한옥들을 보수, 개축하는 것은 물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가회동 일대(북촌)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이 한옥들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공간구성과 설비에는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다른 한옥 밀집 지역으로 확대하여, 역사 도시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전주시도 2002년에 「한옥보존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교동 및 풍남동 등지의 한옥들을 계획적으로 보존, 정비하고 있다. 또, 이곳에 한옥체험관, 서예박물관, 판소리 공연장, 전통문화상품

전시장 등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언론 기사)

(마)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 밤이 깊어 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 하고 찜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 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 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뗏 번이나 돋우고 흥게닭이 뗏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룻묵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츰 시누이 동세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계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문학 교과서의 백석, '여우난 곶죽' 중에서)

※제시문과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십시오.

【논제】

한옥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에 전통문화의 계승과 변동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대하여 논술하십시오.

(1,400자 이내)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십시오.>

1.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은 한옥으로서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2. 한국식 아파트에서 찾을 수 있는 한옥의 요소는 무엇인가?
3. 가옥 구조와 삶의 방식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료 1>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의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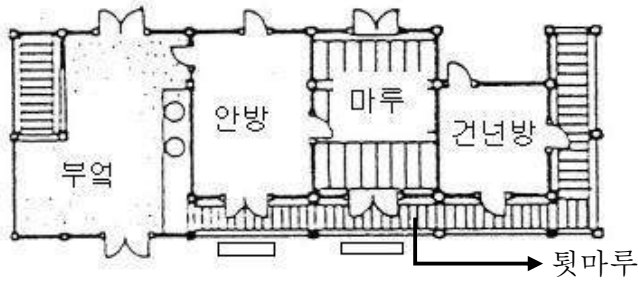
가.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후기 한옥의 외관과 내부



나.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한옥의 외관과 내부



<자료 2> 주택 평면도의 사례



전통 한옥



현대 한국의 아파트



현대 미국의 아파트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출제 의도

- 교과서의 내용에서 추론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 현상과 국가 정책에 적용하였을 때 발현되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옥 구조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전통’이라는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논술과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있게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주제는 사회문화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서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주제를 하나의 당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문화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과정이나 방식을 통해 계승 또는 전승되는 것인지,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 이 문항을 통해 “전통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과 수정의 과정을 밟아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회문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이 현실과 관련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문항 설명

- (가)에서 (마)까지의 제시문들은 논제에 답할 수 있는 지식과 사유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료 1> 및 <자료 2>는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 제시문 (가)는 우리 민족 문화의 의미와 현 상태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 (나)는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복원을 위한 국제헌장(베니스 헌장)」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 문서」를 원용하여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진정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한옥의 보편적 특징과 한옥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제시문을 통해 한옥문화의 핵심적인 외형적 가치를 유추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설명한 언론 기사로서 한옥문화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백석의 시 「여우난 굶죽」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서 문학 작품에서 가옥구조와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묘사되고 있다.
- <자료 1> 은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과 새로 조성된 한옥마을의 한옥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한옥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자료 2> 는 전통 한옥, 한국의 아파트, 미국의 아파트의 평면도이다. 한국식 아파트에서 남아 있는 한옥의 요소를 비교의 관점에서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출전 및 참고 교과서

제시문 (가) 사회문화 교과서

제시문 (나) 자체제작

제시문 (다) 한국지리 교과서,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제시문 (라) 언론 기사

제시문 (마) 문학 교과서의 백석, ‘여우난 굶죽’ 중에서

□ 충평

한옥을 재제로 하여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과 기준에 의거해 평가하라는 문제이다. 전통문화 계승의 기준은 전통의 진정성 유지 여부이며, 진정성은 문화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에 나타난 한옥의 정의가 합의된 기준의 예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관점에 따라 1)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의 진정성 유지 여부 2) 현대 한국의 아파트에 계승된 한옥의 요소 3) 가옥의 구조와 자연환경 및 생활방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서술의 방향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옥의 핵심요소를 밝히고, 진정성 개념을 적용한 후,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의 진정성을 서술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온돌과 마루 등 공간구조의 유사성, 좌식 문화 등 생활 양식상의 공통점, 그리고 미국 아파트와의 차이 등을 주어진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논술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가옥구조와 삶의 방식의 상호작용 관계, 농업사회와 전통 한옥의 연계, 또는 대가족 제도(또는 공동생활)와 한옥의 연계, 아파트와 현대 생활양식의 연관성 등을 서술하되, 주어진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대 우리나라 아파트에 계승된 한옥의 요소에 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답하였고, 가옥구조와 자연환경 및 생활방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도 대체로 좋은 답안을 쓰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의 진정성 유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수의 학생이 주어진 관점과 기준을 무시한 채, 자기의 평소 견해나 소신대로 답하여 내부가 개량된 두 가지 한옥은 모두 꺾데기에 불과하며 진정성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성급하게 주어진 관점과 기준 자체를 비판, 부정, 무시하고 자기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사유에 익숙해진 결과로 보인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이를 상대화하면서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사고하며 대상을 판단하는 훈련이 부족한 것이다.

소수의 학생만이 두 가지 유형의 한옥 모두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주어진 자료를 냉정하게 독해하고 그 관점과 기준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사유하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수의 답안만이 아파트에 계승된 한옥의 요소와 가옥구조, 자연환경 및 생활방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출제 의도에 부합하고 있다.

□ 학생답안

◦ 답안 1

우리 시대의 전통문화는 현대의 성격에 맞게 변화되어 잘 계승되고 있다. 비록 시대의 변화 때문에 일부 특성들이 변화되었지만 전통문화 속의 진정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승되어 오는 전통문화에는 여전히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이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계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라)에는 전통문화 계승의 예시로 한옥만을 조성 사업이 나타난다. 낡은 한옥들이 보수되고 새로운 한옥들이 지어지는 것이다. 한옥마을의 한옥은 전통 한옥과 동일한 외관을 지닌다. 반면 내부구조의 경우 전통한옥과는 달리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제시문(다)에 의하면 한옥은 기와와 목재로 지어진 전통 건물이다. 한반도의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 온돌과 마루가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시문(마)는 과거 전통한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분위기와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다. 대가족과 함께 지내던 삶, 아랫목을 차지하려는 자리싸움, 장지문과 닭 우는 소리는 과거 한옥에서 조상들이 향유했을 삶을 보여준다.

내부구조가 현대적인 만큼 한옥마을의 새로운 한옥들은 제시문(마)의 생활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내부 가옥 구조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시문(마)의 관점에서 볼 때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의 겉모습만 이어올 뿐 진정한 삶의 모습을 계승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한옥 계승 과정에서 가옥의 내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분명 가옥 구조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삶의 방식이 가옥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제시문(가)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문화를 완전하게 계승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의 삶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한옥이라도 그 가옥구조는 현대의 모습에 따라 변화한다. 결국(마)의 한옥의 특성은 계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 마을과 한옥마을의 한옥들의 진정성이 외양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식 아파트도 거실이 있고 보일러를 쓴다. 또한 외국과는 달리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이는 분명 한옥의 요소이지만 한국식 아파트가 한옥을 계승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한옥의 진정성은 외양적 요소가 아니라 계승 정신에 있다.

한옥을 새로 짓고 한옥에서 사는 것은 전통계승의식에서 나왔다. 이는 한옥마을 한옥에게 한옥으로서의 진정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전통문화는 정체성의 면에서 잘 계승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현대에 맞게 변화된 전통문화일지라도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어가려 노력하며 이 노력은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

시킨다. 그러므로 변화된 모습으로 계승되는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로서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전통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승되고 변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 채점평

이 답안은 주어진 제시문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한옥의 진정성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규정한 후, 이 정의에 근거하여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의 진정성에 대해 서술한다. 한옥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외형적 진정성과 다른 측면에서의 진정성을 구분하고 있는 점도 이 답안이 다른 답안에 비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비록 논지가 매우 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학시험으로서의 논술을 감안한다면 학생의 사고가 다소 투박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삶의 방식과 가옥 구조가 미치는 영향관계가 상호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답안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다.

그러나 이 답안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후 근거를 제시하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삶의 방식이 가옥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그보다는 삶의 방식이 가옥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앞선다. 답안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덧붙여져야 했다. 또한 답안의 말미에 새로운 한옥의 진정성이 외양적인 요소가 아니라 계승 정신에 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한옥과 아파트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답안 2

가옥의 구조는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좌식생활을 해온 우리 민족은 바닥의 청결유지를 위해 툇마루 아래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집을 지었다. 또한 바닥에 등을 직접 대고 잠을 자는 방식은 (마)에서 묘사된 ‘아룻목싸움’을 할만큼 방바닥의 온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방바닥 전체를 덮히는 온돌 구조에 반영되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사고방식은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떨어져있는 구조와 고립된 부엌구조에 반영되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가옥구조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은 한옥의 계승에서 핵심적요소가 무엇인지 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선 외부의 모습이 우리의 전통가옥과 같아야함은 당연한 핵심요소이다. 즉 한식 기와와 목조 구조 등을 통해 고유의 전통미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쟁이 되는 것은 그 내부이다. 외래 문명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내부 구성까지 옛날과 같게 유지하고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옥의 내부구조에서의 핵심적요소는 우리민족 고유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한옥의 핵심적 요소를 외부적으로 전통구조의 유지, 내부적으로 삶의 방식이 반영된 구조의 유지라고 할 때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은 모두 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두 한옥은 모두 외부적으로는 전통 가옥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그 핵심적 요소를 전승하였다. 내부적으로도 역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나 집안 가운데에 위치한 거실의 구조, 온돌 방식의 난방, 마루바닥 등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반영된 요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핵심적 요소가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한옥 모두 한옥으로서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식 아파트의 경우, 비록 외관상으로는 고유의 전통미와 거리가 멀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통 한옥의 요소를 보존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그 요소가 두드러진다. 테라스보다 넓은 발코니는 전통 한옥의 툇마루를 연상시키며 한쪽으로 치우친 미국의 거실과는 달리 한국의 거실은 전통 한옥에서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또한 ‘시누이 동세’들 즉 여자들만 출입해왔던 부엌은 미국에 비해 전통한옥처럼 구석에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옥은 우리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창조적으로 발전되어왔고, 아파트 역시 한옥의 요소를 유지해왔다. 가옥 구조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화된 비빔밥, 편리하게 개량된 한복 등 의식주 전 분야에서 전통문화는 창조적 변화를 겪으며 계승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의 문화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옥의 경우처럼 전통미를 유지하되 그 안에 담긴 것을 편의에 맞게 변형시켜나가는 것은 오히려 전통문화의 계승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전통문화는 그 계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채점평

전통문화와 삶의 양식간의 관계에 대하여 학생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문 (마)의 인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옥 구조가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서술도 매우 구체적이며, 주장의 내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이 답안이 다른 답안에 비해 좀 더 나은 점이다. 특히 전통의 핵심적 요소를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로 구분한 후, 한옥과 아파트가 각각 어떠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다.

다만 이 답안에서는 제시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핵심적 요소와 진정성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논술의 기본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진술하되, 제시문에서 주어진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때,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